

# 영암군,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4억원 돌파

## 기업 등 현장 방문 홍보·이벤트 성과... 모금액 182%, 기부건수 274% 달성

영암군의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6월 말 현재, 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4억원 돌파 시점이 10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는 4개월이나 앞당긴 것으로, 영암군은 꾸준한 현장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억2,000만원에서 182% 증가했고, 기부건수는 1,197건에서 3,274건으로 274%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53개의 지역 안팎의 기관·기업에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현장 기부 이벤트도 함께 추진해 HD현

대상호를 포함한 대불산업단지 입주업체 임직원, 광주광역시민, 서울특별시민 등 576명으로부터 총 5,67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해 전 국민의 기부행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달 29일까지는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했소? 한우왔소!' 이벤트로 신규기부자와 재기부자에게 추첨을 거쳐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고, 30·31일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이벤트 한우상품을 주문하면 한우를 증량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고향사랑기부금 4억원 조기 달성은 영암군에 보



내 준 기부자들의 성원 덕분이다. 앞으로 더 현장 방문을 돌며 다가가는 홍보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오는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60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 취약 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분야를 반영해 섬진강기차마을 환경정비 등 24개 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 곡성군 2025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25. 8. 11.)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참여

여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7일 이후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접일자리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곡성군에서는 참여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의 도약이 가능하도록 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및 산업체 현장 교육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 진도군,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 '고추 병해충 주의' 당부

#### 진단키트 활용해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 강화

진도군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추 병해충에 대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예방을 당부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은 고추의 주요 병해충인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병 등의 발생을 급증시키는 주범으로 특히 탄저병, 역병은 장마철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특징을 가졌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전염위 조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탄저병, 시들음병, 풋마름 등 주요 병해충 감염 여부를 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이 요청하면 전문 지도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물 관리 요령과 맞춤형 기술을 함께 지도한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고추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는 ▲뿌리를 비닐로 덮기(멀칭) 등 고랑 포장 관리 ▲배수로 정비 ▲장마기 전후 보호용 살균제 살포 등이 중요하다. 이미 병이 발생했다면 병든 과실을 제거하고, 작용 기작이 다른 치료용 살균제를 7~10일 간격으로 교호 살포해야 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잦은 강우로 고추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병해충 사전 방제와 배수로 정비 등 포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김순호 구례군수, 공무원들과 '제1차 호프데이'로 소통

전남 구례군은 지난 3일 저녁, 군청 시설직 및 녹지직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인 '제1차 호프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수와 직원들이 일과를 마친 후 부담 없이 한자리에 모여 맥주를 곁들인 비공식 대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평소 업무 중에는 나누기 어려웠던 다양한 경험과 각자의 노하우,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 됐다.

참석한 한 직원은 "군수님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례/한경호 기자



#### 고흥군, 폭염 대비 건설현장·무더위 쉼터 안전점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폭염 장기화에 따라 지난 11일 건설 현장과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 근로자와 온열질환 민감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진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주요 건설 현장과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과 쉼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 현장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폭염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와 무더위 쉼터 적정 온도 유지 및 청결 상태 등 시설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무안군, 폭염 대비 경로당 현장점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 경로당을 방문하며 점검에 나섰다.

직원들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경로당 내 냉방시설 작동과 쉼터 개방 여부, 주기적인 환기 실태 등을 점검하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하였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매년 잊지 않고 안부를 살펴주어 고맙다"며,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폭염 장기화로 우리 이웃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살림이 필요한 시기"라며,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경로당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무안군 제공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